

CHAPTER 4. 정시모집 대비 전략 수립의 정석

2) 정시모집은 수능 점수 줄 세우는 전형?

많은 학생들이 정시모집은 단순히 수능만 잘보면 만사형통인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점수별로 1등부터 끝까지 줄을 세워 선발하는 전형이 정시모집이라고 오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 정시모집은 따져보아야 할 변수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즉, 이를 바꿔 말하면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좋은 수능 점수를 받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하지만 아무리 좋은 수능 점수를 받아도 나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치밀하게 세우지 못하면 합격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정시모집입니다.

입시는 전략입니다. 대입에서 정시의 중요성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정시모집 데이터를 잘 분석해 나에게 꼭 맞는 입시전략을 세운다면 정시모집으로도 목표 대학에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수 많은 정시모집,

반드시 정시모집 염두해야

많은 대학들이 수시모집 비중을 늘리는 등 수시모집 중심으로 신입생을 다수 선발함에 따라 수험생들 역시 수시모집 중심으로 대입 전략을 세웁니다. 최상위권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내신 성적 관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수능 학습은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맞추는 정도로만 하지요. 하지만 주요 대학에서는 여전히 상당수의 신입생을 정시모집으로 선발합니다.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서울지역 15개 대학의 정시모집 정원 총합만 해도 1만 명이 넘습니다.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이 도전하는 의대의 경우 40%에 가까운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선발합니다. '수시에만 올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내신 성적이 좋은 최상위권 학생들 가운데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맞추면 합격할 것이라

맹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수시모집에서는 변수가 많습니다. 내신 성적 0.1등급 차이로도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는 것은 물론이고, 비교과 활동이나 자기소개서 때문에 합격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논술전형의 경우 내신 성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하는 것이 절대 아니지요. 내신 성적은 조금 낮더라도 논술 실력이 뛰어난 학생이 최종 합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학교 내신 성적만 믿고 '수능 최저학력기준만 충족하면 수시모집에 최종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최상위권 수험생들은 수시모집에서 합격하지 못하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정시모집까지 내다보는 입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수시모집만을 염두에 두고 대입을 준비했을 경우, 수시모집에서 목표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면 정시모집 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수시모집을 통한 서울 최상위권 대학 진학을 목표로 1등급 초반 대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3개영역 평균 2등급 성적을 유지해온 인문계열 학생 A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학생의 계획대로 수시모집에서 목표 대학에 합격한다면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까지 전혀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이 학생이 수시모집에서 최종 불합격하게 된다면 정시모집으로는 목표했던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모의고사 3개영역 평균 2등급은 서울 중위권 대학에 지원할만한 성적이기 때문이지요.

학교 내신 성적이 2등급 중반~3등급 초반 대인 중상위권 학생들은 수시 모집으로 서울 상위권·중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중상위권 학생들이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을 끌어올려 전체적인 내신 점수를 높이겠다는 목표로 고3 수험생활을 시작하지만, 한 학기 성적으로 지난 4학기 성적을 뒤집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인 것이죠. 2등급 중반 이하의 내신 성적으로 서울 상위권·중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려면 수시모집 논술전형이나 정시모집을 노리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학년 2학기까지의 학교 내신 성적이 3등급 후반 대 이하인 수험생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입시 전략을 정시모집 위주로 다시 짜야 합니다. 3등급 후반 대 이하의 내신 성적으로 서울에 위치한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므로 만약 서울지역 대학이나 수도권 주요 대학 입학为目标로 한다면 수시모집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정시모집에 집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시모집 특기자전형을 노렸던 특목고·자사고 재학생들 역시 정시모집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고려대가 특기자전형을 폐지하는 등 대부분의 주요대학이 특기자전형을 축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5월까지 진도 끝내라

그렇다면 정시모집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수능 대비가 가장 관건입니다. 5월까지 수능 학습을 모두 마친다는 생각으로 학습 계획을 짜야 합니다. 6월이 시작되기 전까지 수능 출제 범위까지 학습을 모두 끝내 놓아야 6월 모의고사에서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6월 모의 고사는 실력 확인 외에 수능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능을 반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시험을 망치면 시험에 대한 자신감과 학습에 대한 흥미가 모두 떨어집니다. 여름방학 때는 고난도 문제풀이, 오답노트 풀이 등을 통해 자신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9월 이후에는 모의고사를 풀며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지요.

최상위권 학생들은 어려운 수능에 대비한 학습 기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최근 수능이 다시 어렵게 출제되는 추세이므로 최상위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은 '불수능'에서도 고득점을 하기 위해 '어려운 수능'에 대비하고, '어렵게 공부'해야 합니다. 기출문제 가운데 오답률이 높은 문항을 따로 모아 풀거나, 고난도 문제를 모아둔 문제집을 풀어보며 '킬러문항'을 잡아야 1등급을 사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위권 학생들은 한 과목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중위권 학생들의 경우 수능 날짜가 가까워지면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일부 과목을 포기하고 남은 과목에만 집중하는 전략을 짜는 경우가 많은데, 한 과목이라도 포기하는 순간 정시모집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정 과목의 성적이 학습량에 비해 잘 오르지 않을 경우 고난도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를 모두 맞힌다는 생각으로 기본 개념을 중점으로 학습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평가로 전환되는 영어 학습을 빨리 끝마치는 것은 학습 수준을 막론하고 중요합니다.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영어 학습을 조기에 마치고 국어와 수학 학습에 집중합니다. 이 때문에 상위권과 중위권의 국어와 수학 성적 격차가 크게 벌어지곤 합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이 격차를 더욱 벌리기 위해, 중위권 이하 학생들은 이 격차를 줄이고 더 나아가 상위권에 진입하는 반전을 만들기 위해 국어와 수학에 투자하는 학습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특히 재학생이라면 국어와 수학을 집중 공략해야 합니다. 영어영역은 절대평가로 전환됐기 때문에 사실상 재학생이 재수생보다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국어, 수학에 집중 투자해 재수생과의 격차를 벌리고, 재수생보다 높은 점수를 받는 반전을 꾀하기 위해서라도 국어, 수학 학습에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요.

수능 끝났다고 끝? NO!

수능 이후에도 정시모집을 완벽히 끝내기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험을 쳤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합격을 위한 본격적인 정시모집 준비 단계에 돌입해야 하는 것이지요.

가장 먼저 가채점은 필수입니다. 수능이 끝난 해방감에 가채점을 미루는 경우가 있지만 절대 금물입니다. 가채점은 수능 성적이 발표되기 이전에 치러지는 대학별 수시고사의 응시 여부를 결정하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충족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수십, 수백 가지 방법으로 수능을 활용하고 있는 각 대학들의 전형 방법 중 나에게 유리한 전형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정확한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 목록을 만들어두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지요.

가채점 이후에는 대학의 수능 반영 방법을 살펴 합격 가능성을 진단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수능 총점이 같더라도 대학에서 반영하는 영역별 가중치, 가산점, 활용지표 등에 따라 최종 반영 점수가 달라집니다. 이를 반드시 파악해야 하지요.

수능 반영 영역은 중상위권 대학의 경우, 국·수·영·탐 4개영역을 모두 반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도권 및 지방 사립대는 3개 이하 영역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역별 반영비율은 대체로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가 높습니다. 일부 대학은 국영수 반영비율은 높은 반면 탐구영역 반영비율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성적이 어떤 대학에 유리할지를 면밀히 판단해 보세요.

이런 과정을 모두 거쳤다면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목표대학을 좁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 위치를 냉정하게 파악한 뒤, 그동안의 목표대학 그룹을 내 수능 성적에 맞게 재조정하는 과정이지요. 나에게 가장 유리한 총점 조합과 수능 활용지표 등을 파악해 대학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목표대학 그룹을 선정하되, 내 수능 성적으로 합격이 가능한 지원 가능 대학과 목표로 하는 상향 대학을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자신만의 지원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군별 안정·소신·상향 대학을 구분해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무조건 올해 꼭 합격', '재수도 고려', '재수 각오, 무조건 희망 대학·학과 지원' 등 본인의 지원 성향을 확실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성향에 대한 원칙이 정해져야 같은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차별화된 군별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재수는 고려하지 않으며 올해 꼭 대학에 가야 하는 학생이라면 안정 지원을 중심으로, 재수도 어느 정도 고려하는 학생이라면 1~2개의 군에서는 안정 지원을, 한 개의 군에서는 소신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재수까지 각오하더라도 꼭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은 학생이라면 소신과 상향 지원을 중심으로 가/나/다군 지원 대학을 선택합니다.

또 수험생들은 지원 대학의 모집군 변화 및 지원 경향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활용하되 △모의지원 결과 △실시간 경쟁률 △타대학 모집군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다른 수험생들의 지원 경향 변화를 파악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